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인력난 해소 건의

대한석유협회

정 유업계는 최근 국내석유시장의 경쟁심화 및 환차손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어 2000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각적인 영업서비스 전략을 세워 보다 양질의 주유서비스를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는 최근 일선 주유소의 주유원 및 가스충전원(이하 주유원) 확보가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연중무휴 영업활동을 하는 주유소의 국민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주유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유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타 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3D업종에 해당됩니다. 현재 일선 주유소는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제이나 최근 근로자 부족으로 연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한 경우 주유원들의 이탈로 일선 소장 1인 주유소로 변화되어 업계의 경영은 물론 주유서비스의 불편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업계에서도 차선책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거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 주유원들은 타업종과 비교하여 위험성은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근무시간 내내 옥외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더욱 동직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 주유원의 경우 체력적인 문제와 서비스 교육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장기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소 직원의 평균임금 및 근무기간

구분	평균임금		근무기간
	성인	아르바이트	
2000~2002 주유소 평균	80~100만원	50~70만원	2~3개월

전국의 일반도소매업과 주유소의 인건비 및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구분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율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일반 도소매업 평균	41.8	15.9	52.2	15.0
주유소	50.0	4.0	46.0	4.5

※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1999, 주유소는 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물론 1백만원 미만의 임금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유업계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주유소 면적제한 폐지 등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영업이익률이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각 업체간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상기와 같이 일반 도소매업 평균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근로시간, 노동의 강도, 옥외근무 등으로 인해 평균 근무일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근무기간의 점진적인 단축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서비스 교육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간의 한계에 따라 휘발유차량·경유차량에의 혼용사고, 기타 불친절 사례가 빈발하여 소비자의 불만족 개선요구가 폭증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이 미지 손상으로 이어져 작게는 주유소 경영, 더 나아가 정유업계 전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귀부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을 주유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재 저희 일선 주유소는 정부의 석유산업자유화 조치 이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판매량 감소, 마진을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한 판매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타 업종에 비해 보다 인건비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판매량 및 마진율 변동추이

(단위:천배럴, %)

구분	1998	1999	2000
업소당 월평균 판매량	1,062	1,101	1,084
판매량 증감율	Δ28.20	Δ3.70	Δ1.60
마진율	8.06	6.61	5.35

※ 주유소협회

금번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의 주유원 허용요청은 결코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제도의 도입목적인 내국인만으로는 단순인력 공급의 한계에 봉착한 기피직종으로서 당부 드리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 및 노동시장유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이 주유원 및 가스충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